

2017년도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심의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 회의일시 : 2017. 7. 26(수) 09:30~11: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회 회의실

‘2017년도 원로공연단체 창작공연 확산지원 사업’은 연극, 음악, 전통 예술 3개 분야에 총 20개 단체가 지원하여 상위점수를 얻은 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심의위원 일동은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신청한 모든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심의위원 간 해당 사업의 문제점 및 장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단체의 적합성을 평가했다. 또한, 각 분야별 심의위원은 본인의 전문분야 관련 의견을 타 분야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전체 장르를 함께 토의하는 종합토론에 있어 분야별 이해도와 결과 도출에 기여하였다.

심의과정에 있어 사업 공모시 제시된 지원자격인 원로예술인의 참여공연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단체와 창작공연을 대국민 확산을 위한 5개 지역에서 공연기획이 가능한 단체와 또한 단발성 공연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작품을 선정 대상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과거 2년 안에 유사 공연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공연 실적의 적절성 여부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덧붙여 대국민 문화향유의 가능성 있는 소재 및 형식 위주의 작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체는 극단 파도소리, 대중문화예술진흥회, 한국창극원의 3개 단체로 지원신청한 단체 중 장르종합적인 사업이 부족함과 수혜지역의 균형있는 안배를 위해, 선정된 단체간 중복지역과 예산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3개 단체를 통한 사업추진이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에 더 적합했음을 심의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먼저, 연극분야 극단 파도소리의 번지없는 주막 의 경우 과거 2년간의 공연실적의 적절성을 근거로 지역문화 향유라는 선정기준에 적합하였다. 또한, 공연의 콘텐츠가 매우 우수하고, 계획의 충실성과 수월성 실현가능성 결과의 파급효과가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원로 배우들의 공연의 출연의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원로 배우의 출연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판단되며, 공연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평가했다. 또한 원로배우의 등장 비중을 높임으로써 이 공연이 보여주기식의 제안이 아니라 본 사업의 기본 취지인 원로배우 출연 지원사업의 취지에 우수한 적합성을 보였다.

음악분야 지원단체 중 한국대중문화예술진흥회의 원로 금빛제전 의 경우 기존 공연에 대한 지역의 원로예술인 및 지역민의 평판과 호응이 높고, 계획의 충실성 및 수월성도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원로 배우출연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로 배우의 출연이 형식적인 출연이 아닌, 콘텐츠의 연출 기획을 살려 원로 배우들이 공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과 또한 기대하게 한다. 본 사업의 취지와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전통예술 분야의 한국창극원이 신청한 오유란 은 콘텐츠가 우수하고, 계획의 충실성과 수월성 실현가능성 결과의 파급효과가 전체적으로 높을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소재의 방향성이 창작공연에 아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후 발전 가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원로 배우의 출연 비중도 높음과 동시에 원로 배우의 출연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평가했다. 본 사업의 취지와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금번 사업에 신청한 단체 중에는 본 사업의 기본적인 지원자격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사업대상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기본 취지인 원로 배우 출연지원 사업에 순수성 및 진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업의 충실성과 구체성 실현가능성 결과의 파급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일동은 본 심의를 마치며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본 사업의 취지인 원로 예술인이 출연하는 공연의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인의 지원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원로예술인의 출연이 동 사업의 공모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원로예술인의 출연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 및 연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연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한 소재의 발굴 및 작품의 기획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심의위원명 : 김 동민 (서명)
김 인우 (서명)
김 보경 (서명)
양 계원 (서명)
HS 권 리 (서명)